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2019년 8월 2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월 1일 11시부터 보도 가능					
배포일시	2019. 8. 1. (총 2쪽)	담당부서	한우연구소		
담당과장	한만희 소장 (033-330-0601)	담당자	권응기 연구관 (033-330-0612)		

한우, 꼼꼼한 관리로 무더위 이겨내소

- 소화 잘 되고 영양 높은 사료 먹이고, 축사 온도 낮춰야 -

-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 먹이와 환경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.
 - 소 호흡수는 환경 온도가 25도(℃) 이상 오르면 크게 늘어난다.
 - 사료를 소화하는 동안 몸 속(되새김 위)에서 나는 발효열로 체온이 올라가 사료 먹는 양이 준다.
 -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함에 따라 영양소 불균형과 부족현상을 초래한다. 이로 인해 비육우(고기소)는 체중이 줄고, 번식우(암소)의 수태율이 낮아지는 등 생산성이 저하된다.
-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가 좋아하고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먹이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.
 - 비육우는 소화하기 쉬운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 위주로 주고, 단백질과 에너지 등 영양소 함량을 높여준다.
 - 번식우의 경우, 번식 활동 등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과 무기물 등을 먹인다.
 - 송아지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에

걸리지 않게 주의한다.

- 수분 흡수율이 좋은 깔짚을 축사 바닥에 깔아주고, 소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게 한다. 또한 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먹이통을 청결하게 관리한다.

- 소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송풍기와 물 관리 시설을 이용해 축사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.




<개방형 축사>

- 윈치커튼을 개방해 사면이 트이게 하고, 송풍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틀어 환기시킨다.

- 자동 물뿌리개(스프링클러)로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안개 분무 시설을 이용하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.

- 지붕이 투명하거나 비닐하우스 형태인 축사는 그늘막으로 덮어 빛을 가려주는 것이 좋다.
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 “가축의 사료 섭취와 이상행동 등을 잘 살피면서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사양관리에 충실해야 한다.”며 “특히 축사를 깨끗하게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사육환경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.”고 전했다.



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
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권응기 농업연구관 (☎ 033-330-0612)에게
 연락 바랍니다.